

인간사의 지혜를 '가지고 노는' 세편의 노작

노련한 이야기꾼들이 펼치는 우리네 세상살이의 진면목

김형중 | 문학평론가

올 가을 우리 문단은 세명 '노장'의 작품으로 더욱 풍요로웠다. 이들이 펴낸 작품은 우리 소설이 이룩할 수 있는 또 다른 진경이다. 박완서는 일흔의 나이에 현실을 감각하는 예민한 촉수가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줬고, 최일남은 특유의 느릿한 걸음걸이로 늙음과 죽음에 대해 성찰했다. 10년만에 문단으로 복귀한 박범신의 작품에서는 21세기형 거대 서사의 출현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평(評)이라는 것이 작품을 재고 자르고 복돋우거나 추락시키는 행위임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비평의 재미 또한 창작 행위의 재미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솔솔한 것임에는 틀림 없거니와, 기생(寄生)을 책(責)하는 샅대질에도 평자들이 계속 평을 마다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러 평하는 그 재미를 포기하고 싶은 작품을 만나게 되는 것도 평자들의 운명인 모양이다. 재고 자르는 행위 자체가 우스워지고 다만 한 사람의 독자가 돼, 읽은 그대로 작품의 진기(眞氣, Aura) 안에 마냥 머물러 있고만 싶은 때가 종종 있다. 말하자면 평자로서는 당연히 작품에 부여해야 할 객관을 가장한 거리, 혹은 그 자명한 권리를 거둬들이고 싶은 작품들이 있단 말인데, 그런 작품들이란 당연히 걸작의 반열에 오를 만한 것들이거나 내 나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사의 지혜를 '가지고 노는' 노장들의 것일 때가 많다. 이번 가을엔 그런 작품(집)들이 최소한 셋은 되는 형편이니 행이라 해야 할지 불행이라 해야할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이 글이 평(評)아닌 감(感)이 된 사정도 여기에 있지만, 어쨌거나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듯해 난감함은 더한다.

박완서의 《아주 오래된 농담》(실천문학사)을 읽은 다음의 느낌 중에서 도드라지는 것은 단연 '무서움'이다. 올해 일흔을 맞은 노작가의 충기를 운운하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세상을 관조하고 포용해 버려야 편할 그 나이에 또 여전히 자신의 주인공들에게 일말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는 현실인식의 치열함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일상사의 배후에 숨은 '돈'의 실제 밝혀

영빈과 영묘 남매를 둘러싼 가족들의 생로병사, 관혼상제, 회로에 락을 이야기하되 그 모든 것들 뒤에 음험하게 도사리고 있는 자본, 아니 좀더 생활적인 의미로 '돈'의 실체를 밝히는 그 이야기 숨씨는 과연 '무섭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도리가 없을 정도다. 돈

의 논리에 따라 사람이 죽고, 돈의 논리에 따라 사랑이 이뤄지며, 돈의 논리에 따라 아이들이 양육되고, 또한 인간사의 모든 의식이 질서정연하게 치러지는 이 소설 속에서 인물들은 결코 '돈' 그 밖의 것을 꿈꾸지 못한다. 오로지 '현금' (이 이름마저도 이미 '돈'이다)과 그녀의 아파트만이 돈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일탈과 유희의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마지막 에필로그에 이르러서는 그 해방 공간 역시 이내 '아무 데도 없는 곳'으로 판명남으로써 그 무서움은 더해진다. 게다가 작가는 이 무서운 이야기를 격한 고향 소리나 비난, 혹은 조롱과 냉소 섞인 어조로 끌어가지도 않는다. 그랬다면 박완서의 소설이 아니었을 것이고 덜 무서웠을 것이다.

그 무서운 이야기를 조용조용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그들의 편인 것처럼 그들의 내부와 외부를 넘나들며 이어나가는 박완서의 이야기 방식은 그 차가운 태도만으로도 더욱 무섭다. 나이들어 그토록 차갑게 세상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비판의식을 유지하는 것도 참으로 큰 복이겠다.

'노을지경'의 장관 연출해

최일남의 소설집 《아주 느린 시간》(문학동네)은 박완서의 소설에 비하면 아주 편안하다. 얼마나 편안한가 하면 그 갈등 '제로' 상태를 위해 어서 늙고 싶어질 정도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편안하다. 노쇠와 죽음이란 모든 인간의 평생 화두겠지만,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은 항상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들 몫이다. 문제는 추하지 않게, 그러나 과장되지도 않게 덤덤한 듯 그것을 받아들여가는 과정일 텐데, 최일남의 주인공들은 모두 그 일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중이다. 노인들 특유의 느리고 해찰하는 걸음걸이로, 동네 공원을 산책이나 하듯이,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때론 걸고 무뚝뚝하게, 때로는



실천문학사
A5신/324면/8000원

문학동네
A5신/312면/7500원

창작과비평사
A5신/288면/7500원

은화하고 섬세하게 '노을지경'의 장관을 연출하는 그의 이야기 숨씨는 박완서의 냉철함과 또 다른 향기를 느끼게 한다. 작품을 이리저리 재고 자르고 복돋우고 추락시키는 평 행위를 포기하게 하는 것도 이 지점인데, 젊은 나이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웅숭깊은 그 노인네들의 속내는 경외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망정, 평가의 대상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여유자적한

노인네들에게 고질적인 "흔들린 물로 물방아를 돌리는 격"의 회고담을 탓하려는 독자들을 위해 미리 작가의 일침으로 경고해 둔다.

"흔들린 물로 물방아를 돌리는 격이라고? 그런들 상관 있다. 아주 빠지면 곤란하지만 시간여행에 재미 들이면 엔

간한 따지쯤 시쁘게 대할 수 있다. 거기서 돈이나 밥이 나오는 건 아니로되 세상을 견디는 힘과 폭폭한 삶의 디딤돌 구실을 너끈히 한다. 저립(佇立)을 용서하지 않는 질주에 기겁해서 한옆으로 밀린 이들의 쉬어가는 시간으로 불가피하다. 아니 노적가리를 풀어 헤치듯 지난날들의 이야기 보따리를 조곤조곤 파먹은 자리가 무엇 보다 흥겹다."(〈고도는 못 오신다네〉)

거대서사의 복원 피해

박범신의 《향기로운 우물 이야기》(창작과비평사)는 앞의 두 노년 작가들에 비하면 다소 무모하다. 아직 이순에도 들지 못한 젊은(?) 나이 탓도 있겠지만, 작가 서문에서도 강하게 피력돼 있듯이 스스로 '돌아온 탕아'를 자처하며 지난 10여년 소위 '인기 작가' 시절의 외도(?)를 만회하려는 강한 의지도 한몫 거들고 있지 싶다. 다소 무모하다는 것은 앞의 두 노장들이 아주 편안하게, 혹은 아주 냉철하게 자신의 소설을 통제하고 있음에 비해, 박범신의 경우 이 작품집에 실린 소설들이 소재에서나 그 미적 성취도에서 다소 들쭉날쭉한 데가 있음을 염두에 둔 말이다. <세상의 바깥>이나 <소음>에서 보여주는 형식실험이 성공했는지는 미지수며, 예술가 소설의 범주에 들어갈 만한 <별뿔별> 역시 노인의 관음증과 화가의 '빈 중심'에 대한 천착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러나 이 작품들을 제외한 다른 작품들의 경우는 역시 '분석' 행위를 통해 그 오롯한 아름다움을 잘게 부수고 싶지 않을 만큼은 충분히 탁월하다. 70년대 민중소설로 다소 되돌아가 버린 듯한 의심을 떨치기 힘들에도 <들길> 연작 두 편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언어 사용과 형식미 덕택에 두고 두고 읽어 손색이 없을 작품이며, <가라앉는 불빛> <내 기타는 죄가 많아요, 어머니>는 단편소설이란 이런 것이로구나란 탄성을 자아낼 만큼 그 절제와 균형의 미덕이 모범적이다. 그러나 이 작품집을 통틀어 가장 빛나는 작품은 역시 표제작인 <향기로운 우물 이야기>다. 이 작품은 <들길> 연작이 범하고 있는 '답습'의 오류를 완전히 벗어나 있으면서도 충분히 리얼리즘적이며 현실비판적이다. 간통범으로 몰린 여자의 법정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는 긴박한 서사가 엄연히 존재하며, 절규와도 같은 그 진술이 담고 있는 다음과 같은 주장은 21세기형 거대서사의 복원이라는 야심찬 의도마저도 가능해 보이게 한다.

"정치판이든 장사판이든, 까놓고 말해, 우리 모두가 다 익숙한, 삼십년 사십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끈질기게, 그 생명력 자랑하는, 개뿔이나 상생은 무슨, 개떡이나 새천년은 무슨, 개코나 정보화 세계화는 무슨, 모두들 알고 있지요, 우리, 세상 눈부시게 변한다고 말할 하지만, 이 수법 말예요, 면내의처럼 몸에 착 붙어서 이젠 진짜 우리 것이 돼 가고 있는, 이 더러운."(〈향기로운 우물 이야기〉)

이 진술만으로 21세기형 거대서사의 복원 운운하는 것이 과장이라 여겨진다면, 그녀의 간통사건 배후에 골프장의 자본과 향기로운 우물이 있던 순박한 마을의 대립, 돈을 위해 아내를 간통범으로 모는 남편의 가부장주의와 스스로의 여인됨을 공표하고 나서서 여전사의 대립이 있음을 지적하면 되겠다. 말하자면 박범신이 이 소설을 통해 복원하려고 하는 거대서사는 계급 일원론의 거대서사가 아니다. 그는 여전히 집단적 싸움의 절실함을 주장하되 그 싸움의 형태를 생태문제와 여성문제, 자본과 계급의 문제가 함께 겹쳐진, 분명히 '21세기적인' 성격의 것으로 보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거의 사라져가던 '집단적 싸움'이 다시 우리 소설에 돌아오는 이 장관을 뒤늦게 박범신이 연출하고 있다. 이순 다 돼서 다시 시작한 그의 싸움이 어디에 이를지 기대해 본다.●